

2020년 9월 16일

팬데믹 시기 총원 생활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놀랐듯이, 코로나-19가 미국에까지 다다른 것은 우리에게 충격이었다. 우리는 2월 27일 목요일 프로비던스 하이츠(피츠버그)에서, 2021년 수도회 총회를 위한 총회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쳤다. 모든 참석자들과 통역사와 진행자는 2월 28일 금요일 경에 돌아갔다. 메리 프랜시스 수녀, 로사 수녀, 그리고 마리아 페스트 수녀는 금요일에 회원들을 방문한 후 토요일에 로드 아일랜드로 돌아왔다. 우리는 회의 기간에 성취할 수 있었던 모든 것에 감사 드리며 돌아갔다. 그때만 해도 우리 수도회 리더십 팀은 이것이 2020년 마지막 대면 회의가 될 줄 몰랐다. 수도회 리더십 팀은 꾸준히 회의를 하고 있지만 모두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회의 진행자 조앤 핸라한 수녀(SSND)와 6월 말에 화상회의를 하면서, 10월 14일-20일 개최하게 될 수도회 리더십 평의회(CLB)회의를 구체적으로 계획했다. 2월 초에 시행했던 독일 방문 후속 조치로 엠마누엘 폰 케틀러 관구 팀과 몇 차례 회의했다. 마리아 페스트 수녀는 산미겔 선교지 수녀들이 완카피에 있는 새 사도직을 인수하게 되면서, 필요할 경우 페루 마리아 크리스티나 수녀를 만날 수 있었다.



헨리 보다 본당 신부의 배려로 총원에 성체를 모실 수 있었다. 처음에 우리는 성무일도 시편을 기도에 포함하여 성체를 모시는 예식을 계획했었다. 성삼일과 부활성야 그리고 부활 대축일 전례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본당에서 생중계를 했다. 화상으로 전례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다행으로 여겼다. 몇 달간 화상으로 매일 미사와 주일미사를 드렸다. 우리는 본당 신부 혼자서 전례를 거행하는 동안 신자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고통을 느꼈다. 우리는 총원에서 성체를 모실 수 있었기에, 참석자를 제한하는 가운데 6월 7일 본당을 다시 열었을 때에도, 계속 화상으로 주일 미사에 참여하여, 한정된 본당 좌석을 다른 이들에게 양보했다. 6월 8일 이후부터는 본당 매일 미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화상 회의

3월 12일 이후, 우리가 참석하려고 했던 모든 회의는 취소되었다. 섭리 이벤트인 정의와 급진적인 희망이 만나는 곳-초대에 함께하다 *Where Justice and Radical Hope Meet: Join the Call* 같은 모임 일부가 차후로 연기되었지만, 우리 수도회 리더십 팀은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다. 미국여자수도자 장상연합회(LCWR)연례 어셈블리와 세계여자수도회 총장연합회(UISG), 미국 대륙 3 연례 회의 같은 일부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간 진행된 LCWR 회의에 찬사를 보내야 할 것이다. LCWR 어셈블리 다음 날 개최된 UISG 미국 대륙별 회의에 미국에서 수도회 총장 105명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아일랜드에서 참석한 UISG 사무국장인 패트리시아 머레이 수녀(IBVM)가 진행했다. 줌 화상회의로 진행했으며 성공적이었다.

LCWR 회의 주제 “하느님의 무한한 비전-경계와 그 너머를 향한 우리의 여정” 는 참석자들이 함께 모색하여 정한 것이다. LCWR 회원들은 경계로부터 도전 받았고, 보다 공정하고 측은 지심에 찬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성 수도자들이 어떠한 영역에서 기여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코로나-19가 지구 공동체, 수도공동체 리더 및 회원들에게 미친 영향, 기후 제어, 가톨릭 수녀들의 사명과 삶에서 인종 차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등이 주제였다. LCWR 참가자들은 우리 시대의 난관들을 어떻게 직면해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나누었다. 또한 수도생활의 한 시대를 마무리하며 미지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이끌며 이미 수도생활 내내 엄청난 도전을 받아온 상황에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질문하였다.



세계여자수도회 총장연합회(UISG)사명 선언문

UISG 사명선언문을 아는 것이 좋겠다. 다음은 사명 선언문이다.

그리스도에 뿌리를 두고 전 세계 여자수도회를 대표하는 국제 기구인 UISG는, 그 다양성 안에서 활동수도생활의 정체성을 증거하고 선포하고자 애쓴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연대를 이루고 새로운 변방들을 확장해가며 수도자들의 리더십에 활기를 북돋우고 지지하고 자극하여 교회와 세상에서 예언자적인 목소리와 증거자가 되도록 한다. UISG의 사명은 거리와 국경과 경계를 잇는 다리를 놓아 회원들이 서로 교류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친교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UISG 목표는 수도생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다.

UISG 사무총장 패트리샤 머레이 수녀는 UISG 특별 프로젝트 두 개를 강조했다. 최근 특별 주년을 기념한 두 프로젝트는 프란치스코 교종이 축성된 여자수도자들에게 부여한 임무이다. UISG 회의 기타 부분은 미 대륙을 대표하여 봉사하고 있는 콘스탄스 필립스 수녀(SCL), 팻 시먼스 수녀(OP), 그리고 토비 바르디에 수녀(HM)가 진행했다.

탈리타 쿨은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축성생활자들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2019년 UISG 총회 어셈블리에서 10주년을 기념했다. 현재 86개 네트워크를 통해 수녀들이 사명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인신매매 분야에서 일하는 우리 수도회 회원이 있으면, 자국에서 이 사도직을 하고 있는 수녀들로 이루어진 그룹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할 경우 총원의 마리아 페스트 수녀에게 연락하면 된다.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타 수도회 여자 수도자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2018년 6월에 시작한 **지구를 위해 희망의 씨 심기** 캠페인은 여자수도자들의 수도회로 하여금, 올해 반포 5주년을 기념한 프란치스코 교종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우리 공동의 집 돌보기**를 실

행하기 위한 방안을 개인 차원에서 또 공동체 차원에서 찾아 보도록 도전을 주었다. 예수 마리아 성심의 프란치스코 딸회 실라 키제이 수녀(FCJM)가 이러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수녀는 현재까지 그들이 노력한 바를 모두 보고했다. 2019년 UISG 총회 어셈블리에서 여자 수도회 각 공동체는 수도회 내 연락 담당자를 임명하여 이 캠페인을 확장해 가고 수도회에서 더 많이 지지하도록 요청 받았다. 우리 수도회에서는 사명과 국제성 위원회가 이 사안을 다루기로 했다. 사명과 국제성 위원회의 CLT 담당자인 리베라타 수녀는 이 사안을 9월 위원회 회의에 포함했다고 했다.

수도회 리더십 팀과 사도직을 하는 모든 이에게 전하는 특별 감사

총회 결정 사항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도회 리더십 팀과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특별히 감사 드린다. 특별 요청에 응할 준비를 갖춘 회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많은 단체에게, 수도회 리더십 팀은 수도회에 속한 유닛(관구/선교지)을 통솔하는 것이지 소속 회원들을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자 한다! 24 차 수도회 총회에 앞서 개최되는 마지막 CLB 회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일해온, 그야말로 23 차 수도회 총회에서 24 차 수도회 총회로 우리를 이끌어 온 이들을 주목하고 싶다. 수도회 리더십 팀은 첫 회의에서, 총회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애초에 우리는 수도회 전체에서 자원하여 위원회에서 봉사할 회원들을 요청했다. 위원회에 관심이 있고 또 함께할 수 있는 회원들이 결정되면서 각 위원회 위원장들을 임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젊은 회원들이 보다 온전히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공동체 여러 활동에는 관여하고 있지만 리더십 지위에 있지 않은 회원들에게 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원장들에게 부여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한 네 수녀들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

마리아 클라라 크라이스 수녀—통치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마리아 수녀—사명과 국제성 위원회 위원장
 *모니카 므로섹 수녀—재정청지기직 위원회 위원장
 예시카 아마로 수녀—양성위원회 위원장

*벳사베 팔로미노 수녀가 원래 재정청지기직위원회 위원장이었으나, 비자 문제로 여행이 불가능하여 사퇴하였다. 감사하게도 위원회 위원인 모니카 므로섹 수녀가 재정청지기직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위원장들은 임명된 해당 위원회 위원들과 지난 4년간 일하면서 부여 받은 업무를 완수했다. 위원장들은 UISG 에서 제공한 두 주간에 걸친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워크숍 형태의 이 프로그램은 2019년 1월, 로마에 있는 UISG 시설에서 개최되었다. 프로그램 목적은 수도회에 존재하는 문화/민족/국적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상호문화를 수도회 안에서 그리고 사도직 활동에서 보다 잘 표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수도회를 돕는 것이다. 여러 위원회에서 이룬 업무는 24 차 수도회 총회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여러 국제 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통치위원회 위원장-마리아 클라라 크라이스 수녀. 위원-앙겔리카 후프가르트 수녀, 조앤 시머넬라 수녀, 서재숙 아우구스티나 수녀, 마리아 페스트 수녀

사명과 국제성위원회 위원장-김영미 마리아 수녀. 위원-힐데가르트 에발트 수녀, 바버라 맥멀

런 수녀, 마이라 로저스 수녀, 켈리 산틸란 수녀, 리베라타 리커 수녀

재정청지기직위원회 위원장-모니카 므로섹 수녀. 위원- 정혜숙 모니카 수녀, 프란체스카 오리건 수녀, 벳사베 팔로미노 수녀, 김은순 로사 수녀

양성위원회 위원장-에시카 아마로 수녀. 위원-로사리오 알바레스 수녀, 김은주 율마 수녀, 캐롤 스텐거 수녀, 이네시타 벨레스 수녀, 메리 프랜시스 수녀

총원 스태프로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감사 드린다.

Zoom 회의 담당자, 일정 담당자, 문제 해결사인 **스테파니 터크 수녀**에게 감사 드린다. 수녀는 곧 있게 될 수도회 리더십 평의회(CLB) 화상 회의를 준비하는 지금, 우리를 위해 동시 통역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가능성들을 익히고 있다.

정순이 수산나 수녀, 카르멘 곤잘레스 수녀, 이네시타 벨레스 수녀를 비롯한 공동체 통/번역사들의 봉사에 감사 드린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공동체 외부 통/번역사들—토마스 플래너겐 신부, 시모네 페트라 수녀(SSpS)와 크리스텔 다운 수녀(SSpS, 독일어). 안민아 수녀(한국어)와 평신도 루이스 바우드리(스페인어)—에게도 감사 드린다. 여러 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나라 회원들로 구성되었기에 충실한 통역사들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코로나-19: 도전과 축복

거룩하신 분께서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우리를 돌보아오셨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때조차도 우리의 치유자이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삼켜버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호세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온갖 고난과 역경”을 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모든 느낌들을 선으로, 지혜의 원천으로 받아들이는 기회를 갖는다. 하느님은, 우리가 감정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느낌과 에너지를 생명과 치유를 위한 선택으로 사용하고 우리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일 때, 보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체적(사회적이 아닌) 거리 두기, 격리 혹은 고립 기간을 체험하면서 두려움, 걱정, 지루함, 우울, 분노, 절망, 혹은 단순히 짜증스러움과 같은 다양한 감정들을 체험할 수도 있다. 가까운 미래가 어렵게 보이지만, 이는 모든 것을 내려 놓는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 나아가도록 헌신하라는 초대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지금 여기에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 각자를 위한 어떠한 기회가 있는지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된다. 과도기를 통해 우리는 변화를 향해 마음을 열게 되고, 다시 한번 목적과 연계성을 발견하도록 초대 받으며 도전 받는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우리의 가치를 살아내고, 카리스마를 살아가며,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에게 있는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이들을 염려하는 것—을 하고 있기에 부담을 덜 느낄 것이다.

우리는 미국 저녁 뉴스 끝 무렵에 전하는 여러 이야기들로 감동을 받는데, 이들 이야기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과 측은 지심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들은 긴급 구조원, 의료 전문가, 집안 도우미, 그리고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소독제에 관한 것들이다.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연로한 이들을 위해 시장을 봐주고, 타인들을 돌보는 방법을 찾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두려움과 전염의 시기에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어린이와 십대 그리고 모든 연령대를 넘어선 성인들의 이야기이고, 미국 및 세계 곳곳에서 겪고 있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이다. 우린 지금 그들이 응답하고 돌보고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들을 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미국 전역에 걸쳐 가상 합창단을 구성하여 한 목소리로 공연한 예술인들, 혹은 각기 다른 주 혹은 나라에서 공연을 펼친 댄서들,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장면을 담은 예술가들을 보면서 놀라웠다. 끝으로, 최근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종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비극적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서로 연대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임으로써만이 전세계적인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지구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촉진하면서 교종은 다음 말씀을 통해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을 독려한다. “저는 국가 차원에서는 물론 지역 차원에서의 일치된 행동을 지지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구의 날 50 주년에 교종 프란치스코)

팬데믹 시기에 개최하는

수도회 리더십 평의회 회의

우리는 수도회 총회 전 개최되는 수도회 리더십 평의회 회의 준비에 바쁘다. 이번 회의는 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화상으로 진행된다. 이 어려움뿐만 아니라 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개인 화장실과 욕실이 갖추어진 적절한 시설도 없다. 회의는 10월 14일-20일까지 매일 세 시간 정도 진행될 것이다.

화상 회의에서 우리는 회의 참석자들과 스태프들이 있는 곳의 시간이 각기 다르기에 시차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모든 참석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 누구에게도 편하지 않은 일정이다! 새벽에 참석해야 하는 사람, 밤에 참석해야 하는 사람, 또 식사 시간에 참석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천주섭리수녀회 수녀이고 스태프로서 우리와 함께 기꺼운 마음으로 함께할 것이기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술상의 어려움이 가장 클 것이다. 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또한 개방된 자세로 솔직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수도회에서 사용하는 네 언어로 동시 통역이 가능한 방법을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야기를 영어로 할 때 기타 언어로 동시 통역하여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를 돕고 있는 스테파니 수녀에게 감사 드린다. 우리는 회의 진행자 조앤 헨라한 수녀(SSND)를 통해서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애덕의 딸 수녀회 커뮤니티 스태프의 도움을 받았다. 지금 우리는 통역사들과 연습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이고, 나중에는 회의 참석자 모두와도 연습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를 위해 기도 부탁 드린다!

수도 서원 기념(총원)



헨리 보다 본당 신부는 입회 60 주년을 맞이하는 매릴린 버그트 수녀와 마리아 페스트 수녀가 서원을 갱신할 수 있도록 초대했다. 신부는 이 예식이 본당 신자들에게 큰 증거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서원 갱신은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10월 4일 오전 11시 미사 중에 하게 된다. 팬데믹으로 지금도 본당 전례 참석에 규제가 따른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적으로 서원을 갱신할 수 있도록 초대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환영식 대신,

물론 신체적인 거리 두기와 음식 나눔에 대한 규제로 이 또한 불가능하지만, 기념 기도문 상봉을 준비하여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줄 것이다. 또한 창조 시기를 마무리하는 10월 4일에 서원 기념식을 하게 되기에, 우리는 병들어 베어버린 나무들 가운데 하나를 대체하여 총원에 나무 하나를 심을 계획이다. “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

